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 적응*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Poor Families*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조교수 김 영 희

Dept. of Home Management, Hankyong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Young Hee Kim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mo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 and to examine its impa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poor family children. A total of 206 low-income mothers with a child attending elementary or middle school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the mothers tend to involve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o some degree. But the extent of maternal involvement is not uniform across the types of involvement. In order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the school adjustment which is measured as grades and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regression is performe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the expectation for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involvement in school activities are found important in predic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lso, it is found that the discipline including TV monitoring and the maternal expecta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주제어(Key Words): 저소득층(poor families),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mother's involvement), 자녀의 학교 적응(children's school adjustment)

* 본 연구는 1999년도 한경대학교 학술연구기금에 의해 수행되었음.

I. 문제제기

빈곤이나 경제적 불안정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때 빈곤경험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학교중퇴, 학업성취 저조, 정신건강 불량, 비행 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Harris & Marmar, 1996; McLoyd, 1990).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압박과 자녀의 부정적 결과를 중재하는 관계적 변수, 즉 상호작용적 과정(interactional process)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Downey, 1994; Dumka, et. al, 1997; Lempers et al, 1989). 다시 말하여 적절한 부모역할이나 부모행동은 빈곤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lark(1983)는 빈곤가정에서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는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속에서 올바른 훈육을 한 것과 연관된다고 강조하였다.

부모역할 및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인식이 교육학이나 가족학 분야에서 축적되면서, 최근 들어 가정과 학교간 상호연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Bronfenbrenner, 1979; Comer, 1988; Dornbusch & Wood, 1988). 부모의 참여행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사친회 참석, 자원봉사, 자녀의 숙제 감독 또는 돕기, 학업 격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습활동에 관한 관심이나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한다. 서구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참여가 그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 예를 들어 높은 학업성취, 긍정적인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자녀에 대한 지시·감독이나 교사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Bronstein, 1993; Stevenson & Baker, 1987), 저소득층 어머니의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도(Astone & McLanahan, 1991)나 직접적인 학습관련 참여행동(Paulson, 1996)이 청소년의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부모행동과 자녀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 예를 들어, 자존감(어주경·정문자, 1999), 우울감(박민선·박성연, 1999), 행동문제(김선희·김경연, 1999)와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학업성취(박순자·이은희, 1999)등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다룬 것은 많지 않다. 또한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에 관한 분석도 일부(김순옥, 1993; 한국교육개발원, 1993)에서 부분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진 정도이다. 최근들어 저소득층의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어머니의 부정적 측면의 양육행동과 중·상류층 자녀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양상을 기술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족내 상호작용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자녀간 관계 및 참여활동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통제 변수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자녀의 성 등 배경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다. 어머니 자신의 보고로 참여행동을 측정하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은 학교성적 및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어머니가 지각한 정도로 측정한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성적 평가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실태 및 관련변수 고찰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경향은 어떠한가?
2.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 및 자녀의 학교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3. 통제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의 교육참여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중요성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부모의 역할과 행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대하는 역할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가정에서 행하는 행동(in home activities)을 분석한 연구들은 부모라는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나 행동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대한 참여행동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Dave, 1963; Wolf, 1966; Stevenson & Baker, 1987에서 재인용), 초등학교 입학 이후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참여의 결과는 어떠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과 학교라는 두 제도간 상호연계의 맥락속에서 부모의 교육참여를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 틀로 Epstein (1987)의 가정-학교간 영역중첩모델(the model of overlapping spheres of influence between families and schools)을 들고 있다(Balli, et. al., 1998; 이세용, 1997).

이 관점에 따르면, 가정과 학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공유에 대한 인식은 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적 활동들은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이세용, 1997). 다시 말하여 Epstein의 모델은 부모-학교간 공유목표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참여 효과가 많은 연구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80년대 말부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eith, et. al., 1986; Stevenson & Baker, 1987). Epstein모델에 의하면 자녀의 숙제를 점검하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교사간 공유활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직접적이며 가시적 도움이 아니더라도 부담이 덜되고 시간을 덜 소비하는 즉, 자녀 또는 교사와 학교 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일 등도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Balli, et. al., 1998).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녀교육 참여행위를 세부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며, 대부분 아동기 자녀의 생활지도, 학습지도의 한 두개 문항에 대해 실태파악을 한 정도이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발원(1993)에서는 근로층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지도 및 교육열을 파악한 바 있다. 근로층 부모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만 학습지도에 적극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행하는 양육행동 또한 온정적, 지지적 행동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처벌적, 비일관적 행동의 부정적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김영희, 1996). 최근들어 이세용(1996)은 청소년기 자녀교육에 관한 아버지의 참여활동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일상생활 지도에 비해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이나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하는 정도는 훨씬 낮았으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거나 자원봉사로 일한 경험이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자녀의 긍정적이며 성공적 학교적응이란 높은 학업 성취, 낮은 수준의 결석율,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동기과 만족도, 궁극적으로 낮은 학교 탈락율 등을 일컫는다. 그동안 학교적응을 설명하면서 여러 실증 연구들은 대부분이 학업성적을 다루었으나 (Dornbusch, et. al, 1987; Reynolds & Gill, 1994), 최근 들어 성적 이외의 다른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DuBois & Felner, 1994; Paulson, 1996). Astone과 McLanahan(1991)은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더불어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부모참여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바 있다.

부모의 교육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아동기 자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동기 부모들이 청소년기 부모들보다 숙제 지도 등 학습과 관련된 참여행동에 더욱 유능하고 참여기회가 많으며(Balli, et al, 1998), 어머니와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나 지원적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성적(Bronstein, et. al, 1993; Reynolds & Gill, 1994), 또는 학업관련 자아개념(DuBois & Felner, 1994)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기 자녀의 경우 부모의 참여행동 뿐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또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DuBois 와 Felner는 부모 자녀간 애정적 관계가 참여행동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동대상 연구에 비해 많지 않으나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강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Astone & McLanahan, 1991; Reynolds & Gill, 1994)가 있다. 또한 최근들어 청소년의 TV시청에 관한 통제 및 숙제지도 등 구체적인 부모 참여행동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들(Keith, et. al, 1986; Paulson, 1996)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횡단적 자료에 의해 두 변수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이 자녀의 보고로 부모의 참여

행동을 측정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개인 특성이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보인다.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교사와 더 많이 접촉하고 자녀의 학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적시에 행할 수 있다고 한다(Stevenson & Baker, 1996). Milne 등(1986)은 편부모가족이나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학습지도나 감독에 소홀하게 되며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Acock과 Demo(1994)는 가족구조에 따른 자녀의 성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성별에 따른 직접효과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이 높게 나타난 결과(Paulson, 1996)가 있으나, Keith 등(198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은 부모참여를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교육참여행동과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더우기 부모참여가 저소득층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중재적 역할을 함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짐에 따라, 저소득층 어머니의 참여행동과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간 관계를 살펴보는 의미있다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조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를 기르는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저소득층 어머니를 접근하기 위하여 YWCA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실시하는 여성가장 또는 일반인을 위한 취업강좌에 수강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확률 표집인 편의 표집을 사용하여 서울 4곳, 수원 1곳, 천안 1곳, 대전 1곳의 일하는 여성의 집을 대상장소로 정한

후 연구자 및 훈련된 대학생 3명이 대상기관을 방문하였다. 각 기관의 강좌시간을 이용해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질문지 내용 파악이 어려운 응답자들은 개별 면접에 의해 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은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20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305부를 사용하였다. 그 중 가족구성원의 월수입¹⁾이 150만원이하라고 응답한 어머니의 설문지 206부를 자료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최저 27세부터 최고 55세까지이며, 평균 38.7세로 30대가 가장 많아 57.7%에 달했다.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36.9%를 차지한다. 직장일을 하는 경우 파출부, 식당일을 하는 등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가내수공업 또는 가게운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수입은 가족원 모두의 월수입을 합한 것으로, 100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68.0%, 101-130만원이 16.1%, 130-150만원이 16.0%이었다.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편모의 비율이 50.5%에 이르는데, 이처럼 부부가족에 비해 편모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마도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자가 대상자로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의 수입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 이유 또한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한 취업알선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자녀는 딸(44.4%)보다 아들(55.6%)이 많으며, 초등학교 자녀는 113명으로 57.8%, 중학생 자녀는 87명으로 42.2%에 달했다.

3. 측정도구 및 주요변수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자녀교육 참여활동,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자녀의 학교생활태도에 관한 3가지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Paulson(1996)의 Responsiveness & Involvement Scale, Astone과 McLanahan(1991)의 척도, 이세용(1997)의 학부모교육 참여유형을 참조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가족학 전공자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참여활동의 하위영역인 생활지도 및 통제, 학습활동 참여, 여가활동 참여, 학교모임 참여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alpha=0.57$, $\alpha=0.62$, $\alpha=0.72$, $\alpha=0.75$ 이다. 정서적 관계의 신뢰도는 $\alpha=0.76$ 이며,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어머니의 지각수준 신뢰도 계수는 $\alpha=0.67$ 이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을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식에는 자녀의 성, 어머니의 학력, 가족구조,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학업성취 기대도 및 4가지 유형의 교육참여 행동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는 어머니가 지각한 학교성적과 학교생활 태도 2가지로 측정, 분석되었다. 변수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정도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활동을 생활지도 및 통제, 학습활동 관심 및 참여, 여가활동 참여 그리고 학교모임 참여의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감독·통제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 의하면 약 70%정도의 응답자들이 자녀가 방과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또 외출시 몇시에 귀가하는지 '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이 방과후 자

1)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생활실태론적 방법에 근거를 두고 일정수준의 가구소득으로 저소득층의 범위를 정의한 어주경·정문자(1999)의 연구를 따라, 저소득층을 '도시빈곤 지역에서 가구 월소득이 150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개념정의한다.

〈표 1〉 주요변수의 구성

변 수		정의 및 구성	범위(평균)	표준편차
배경변수	자녀의 성	딸(0), 아들(1)		
	어머니 학력	국졸(1)- 대졸(5)	1-5(3.94)	0.72
	가족구조	부부가족(0), 편모가족(1)		
	자녀와 정서적 관계	칭찬, 애정표시 등 4문항을 더한 값 전혀 그렇지 않다(1)- 늘 그렇다(4)	4-16 (13.89)	2.00
	학업성취기대도	대학입학 기대도 1문항 전혀 원하지 않음(1)- 매우원함(5)	1-5 (4.23)	0.80
자녀교육 참여행동	생활지도 및 통제	귀가시간, TV시청 통제 등 3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전혀 아님(1)- 늘 그렇다(4)	3-12 (9.64)	1.59
	학습활동 참여	숙제지도 등 3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거의없음(1)-1주일에 1번이상(4)	3-12 (7.49)	1.94
	여가활동 참여	운동 함께함 등 3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거의없음(1)-1주일에 1번이상(4)	3-12 (6.06)	1.77
	학교모임 참여	학교행사 참석 등 4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없음(1)-3번이상(4)	4-16 (8.05)	3.15
학교적응	초등학생 성적	국어와 수학 성적 지각수준 2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매우 못한다(1)-매우잘한다(5)	2-10 (7.59)	1.57
	중학생 성적	국어와 수학성적 지각수준 2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10-20점(1)-90-100점(9)	2-18 (11.12)	3.01
	학교생활 태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 지각수준 2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전혀 그렇지 않다(1)- 늘 그렇다(4)	2-8 (6.50)	1.37

〈표 2〉 자녀의 생활지도 및 통제

(단위: %)

항 목	전혀 아님	거의아님	가끔	늘
방과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1.5	6.8	19.4	72.3
귀가시간 통제한다	2.0	4.9	19.0	74.1
TV프로선정, 시청시간을 제한한다	14.1	43.4	34.1	8.3

녀의 행동을 잘 파악하고 있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V프로그램 선정 및 시청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57.5%로 앞의 두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조사와 비슷한 수치로, Reynolds & Gill(1994)의 조사에 의하면 빈곤층 초등학생 어머니들의 약 59%가 TV시청시간을 전혀 또는 거의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TV 시청에 대한 감독, 지도 정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자녀의 TV시청 시간이나 내용선정에 관한 통제, 감독을 다룬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찾기 힘들다. 단지 서울시 중학생 자녀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세용(1997)의 조사에 의하면, 23%의 아버지들이 감독 경험이 없다고 하여 본 조사결과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의 학습활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교육참여는 학교공부, 성적이나 학원수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지, 숙제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 또 자녀와 학습

교재를 함께 골라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표 3>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70.3%)이 '한달에 한두번이상' 자녀와 학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제 참여의 경우 '한달에 한두번 이상' 참여한 어머니가 34.9%인 반면 이런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없음' 어머니가 18.5%였으며,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책이나 교재를 골라본 경험은 '한달에 한두번 이상'이 32.5%, '거의없다'는 20.3%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어머니 가운데 약 1/5가량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자녀의 학습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정도는 학습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4). 즉, '한달에 한두번 이상' 비디오를 함께 감상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24.7%이며, 응답자의 25.7%는 이러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한달에 한두번 이상' 오락활동, 운동을 자녀와 함

께 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20.9%, 19.5%이며, '거의 없다'로 응답한 어머니의 비율이 각각 19.0%, 24.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5>를 통해 교사와 의사소통, 학교 모임 참여를 살펴보았다. 1년동안 학교를 방문해 1번이상 담임교사와 면담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73.0%, 전화로 교사와 통화해 본 어머니는 52.9%로 나타나, 교사와의 의사소통방식에 있어 방문면담의 비율이 전화면담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난해 체육대회, 학부모모임 등 학교행사에 1번이상 참석한 적이 있다는 어머니가 66.6%이며, 명예교사, 급식보조, 선도위원 등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수보다 작아 42.1%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여, 학교행사 참여, 자원봉사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어머니의 비율이 각각 33.3%, 57.8%였다.

<표 3> 자녀의 학습활동 관심 및 참여

(단위: %)

항 목	거의 없음	1학기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번이상
학교공부, 성적, 학원수강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5.4	24.4	42.0	28.3
숙제나 공부를 도와준 경험	18.5	46.6	22.3	12.6
책, 교재를 함께 골라본 경험	20.3	47.2	25.6	6.9

<표 4> 자녀의 여가활동 참여

(단위: %)

항 목	거의 없음	1학기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번이상
함께 비디오를 골라 감상한 경험	25.7	49.5	19.4	5.3
오락활동을 함께 한 경험	19.0	60.0	18.5	2.4
운동을 함께 한 경험	24.8	55.8	18.0	1.5

<표 5> 학교모임 참여

(단위: %)

항 목	지난 한해동안			
	없음	1번	2번	3번 이상
학교방문해 교사와 면담한 경험	27.0	37.7	20.1	15.2
전화로 교사와 상담한 경험	47.1	27.0	16.1	9.8
학교행사에 참석한 경험	33.3	30.9	18.1	17.6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	57.8	20.6	8.3	13.2

이는 빈곤층 초등학생 어머니의 약 13%만이 학교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구의 조사(Reynolds & Gill, 1994) 결과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교육참여 및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

먼저,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 행동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를 제외한 3가지 참여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보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생활지도 및 통제, 학습활동 참여 그리고 학교모임 참여수준이 높았다. 특히, 학습관련 참여행동이 다른행동보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Balli, et. al., 1998)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겠다. Balli 등의 연구에서도 숙제물이 너무 어려워, 예전에 배운 지식과 달라서 등 지식의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부모들이 숙제를 덜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초등학생 국어성적을 '조금' 잘 한다고 어머니가 지각한 경우가 가장 많아 39.4%였으

며, 수학성적은 '조금' 잘 한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자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국어성적은 80-90점대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성적은 70-80점대라고 대답한 응답이 가장 많아 25.2%를 나타냈다. 긍정적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인식도는 중학생 자녀보다 초등학생 자녀가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1) 초등학생의 경우

<표 7>에 의하면, 초등학생 어머니가 지각한 학교 성적에는 배경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및 학업성취 기대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자녀간 관계가 애정적이며 친밀할수록, 자녀의 학교진학에 대한 기대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성적이 높았다.

한편,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저소득층 어머니의 지각정도는 자녀의 성, 정서적 관계 및 학교모임 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딸보다는 아들이, 자녀와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와 대화 또는 학교방문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것으로 보

<표 6>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참여행동 및 자녀의 학교적응의 차이

자녀교육 참여행동	초등학생 (n=113)	중학생 (n=87)	t 값
생활지도 및 통제	9.93 ¹⁾ (1.42) ²⁾	9.29(1.74)	2.82*
학습활동 참여	7.99(1.98)	6.84(1.69)	4.26**
여가활동 참여	6.26(1.84)	5.86(1.69)	1.55
학교모임 참여	8.58(3.12)	7.46(3.08)	2.51*
전 체	32.61(5.79)	29.62(5.76)	3.52**
학교적응	초등학생 (n=113)	중학생 (n=87)	t 값
국어성적	조금 잘한다 39.4%	70-80점대 29.4% 80-90점대 31.1%	
수학성적	조금 잘한다 40.6%	70-80점대 25.2% 80-90점대 18.5%	
학교생활태도	6.55(1.40)	6.42(1.33)	0.63

1) 평균값, 2) 표준편차

* : $p < 0.05$, ** : $p < 0.01$

〈표 7〉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학업성적		학교생활태도	
	b	β	b	β
자녀의 성	.42	.09	.29	.16*
어머니 학력	.20	.16	.18	.09
가족구조	-.55	-.11	-.27	-.10
정서적 관계	.53	.17+	.28	.41**
학업성취기대도	.56	.18+	-.21	-.11
생활지도 및 통제	.00	.16	.00	.09
학습활동 참여	.18	.14	.00	-.01
여가활동 참여	.12	.09	.00	.05
학교모임 참여	.00	.07	.13	.28**
상 수	.68		.21	
R ²	.27		.43	
F값	3.79***		7.99***	

+ : p < 0.1 ,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었다. 본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된 9개 독립변수들은 학업성적 총변량의 27%를, 또 학교생활 태도 변량의 43%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아동기 자녀와의 애정적 관계가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중학생의 경우

〈표 8〉에 의하면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적에는 어머니의 학업성취 기대도, 생활지도 및 통제가 중요

〈표 8〉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학업성적		학교생활태도	
	b	β	b	β
자녀의 성	-.00	-.01	.20	.07
어머니 학력	.69	.12	.00	.01
가족구조	-.00	-.01	.00	.03
정서적 관계	-.21	-.09	-.12	-.16
학업성취 기대도	1.95	.37**	.32	.19+
생활지도 및 통제	.90	.34*	.24	.29*
학습활동 참여	-.52	-.19	.13	.15
여가활동 참여	.54	.20	.15	.18
학교모임 참여	.00	.05	.00	-.08
상 수	.00		2.62	
R ²	.30		.27	
F값	2.90**		2.65**	

+ : p < 0.1 , * : p < 0.05 , ** : p < 0.01

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기대도가 클수록 또 생활지도 및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성적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성적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어머니의 지각에도 학업성취 기대도와 생활지도 및 통제 변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 자녀의 경우 그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학교진학에 대한 높은 기대도나 일상생활 또는 TV 시청에 관한 감독, 통제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독립변수들은 중학생 학업성적 전체변량의 30%를, 그리고 학교생활 태도 변량의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저소득층 자녀의 올바른 적응을 위하여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행동들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 20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대체로 그리 높지 않았으며, 참여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들의 참여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생활지도 및 통제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를 방문하거나 직접적으로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정도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여가활동보다는 학습활동에 더 빈번하게 참여하였으나,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 한달에 한두번이상 정기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간 부족, 지식 불충분 등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저소득층 부모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모들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참여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정기적 숙제감독 및 지도뿐

아니라 직접적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관한 자녀와의 대화 또는 담임교사와의 면담또한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Ball, et al., 1998; Suichu & Williams, 1996).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시간이나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평일에는 부모 자녀간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주말에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교육참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어머니의 상당수가 취업모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녀교육의 주 책임자인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제한된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 아버지들의 자녀교육 역할분담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 및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성,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학교모임 참여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어머니들은 딸보다는 아들이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서구의 선행연구(Keith, et al., 1986; Paulson, 1996)에 의하면 자녀의 성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자녀의 성과 부모의 참여행동, 학업성취 등 관련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가 교사와 잦은 접촉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학교행사 등에 참석할 때 초등학교생들은 더욱 긍정적이며 흥미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 어머니들이 자원 봉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등, 많은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정기적으로 교사와 면담하거나 학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저소득층 어머니 중에서도 학교모임 참여에 커다란 개인 차가 있어($M=8.05$, $SD=3.15$, 범위=4-16점), 참여가 저조한 어머니들에게 자녀교육 참여의 성격 및 효과를 이해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더 나아가,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귀중한 교육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생활지도 및 통제,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어머니의 학업성취 기대도가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자녀 모두에게 중요함이 입증되었는데, 이들의 기대도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4.23$, $SD=0.80$, 범위=1-5점). 이는 아마도 이들의 제한된 교육경력 때문에 누구보다 학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부모의 기대도는 자녀의 지적, 사회적 기능을 위한 높은 기준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중류층에 비해 저소득층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 스트레스 등으로 실제 행동과 기대도간 일치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Reynolds & Gill, 1994), 저소득층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도는 자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원이나 기회가 부족한 가정상황에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더욱 더 중대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기를 벗어난 청소년기 학생의 바람직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감독·통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감독에 비해 TV시청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낮게 관측된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TV시청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부모감독의 중요성을 밝히는 추후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구에서는 부모의 참여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TV시청 시간을 줄이고 이는 결국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는(Keith, et al., 1986) 연구결과를 비롯해, 숙제시간 및 TV 시청시간의 통제와 학업성취간 관련성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횡단적 자료를 통해 나온 변수들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 일부 변수간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 설명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부모참여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으나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참여행동 및 자녀의 적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적 현상을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는 복수참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한쪽의 반응을 다른쪽의 반응에 비추어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Olson(1985)은 주장한 바 있다. 후속연구에서 자녀로부터의 정보가 보완되면 어머니의 참여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족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부모참여-자녀적응간 관계를 탐색해봄으로써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하겠다. 앞으로 자녀의 건전한 발달 및 교육을 위하여 포괄적인 부모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순옥(1992).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한국 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 박민선, 박성연(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 박순자, 이은희(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0(1), 7-19.
- 여주경, 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이세용(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 595-623.
- 한국교육개발원(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93년 연구보고, 248-286.
- Astone, N. M., & McLanahan,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 Balli, S., Demo, D. H., & Wedman, J. F. (1998). Family involvement with children's homework: An intervention in the middle grades. *Family Relations*, 47, 149-157.
- Belle, P. (1982). *Lives in stress: Woman and depression*. Beverly Hills, CA: Sage. 133-178.
- Bronstein, P., Clauson, J., & Stoll, M. (1993). Parenting behavior &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Family Relations*, 42, 268-276.
- Dombusch, S. M., Ritter, P., Liederman, R., Roberts, D. & Fraleigh, M.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Downey, D. (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 - mother & single - fath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129-147.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Dumka, L. E., Roosa, M. W., & Jackson, K. M. (1997). Risk, conflict,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adjustment in low-income, Mexican immigrant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09-323.
- Epstein, J. L. (1987). Effects on student achievement of teacher's practices of parental involvement.

- In S. Silvern (Ed.), *Literacy through family, community and school interaction*. Greenwich, CT: JAI Press.
- Harris, K. M., & Marmor, J. K. (1996). Poverty, parental involvement &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5), 614-640.
- Keith, T. Z., Reimers, T., & Fehrmann, P. (1986). Parental involvement, homework and TV time: On high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5), 373-380.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ilne, A., Myers, D., & Rosenthal, A. (1986). Single parents, working mother and educational achievement of school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9, 125-139.
- Paulson, S. E. (1996).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achievement revisited. *Family Relations*, 45, 201-208.
- Reynolds, A., & Gill, S. (1994). The role of parental perspective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inner-city black children.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3(6), 671-694.
- Stevenson, D. L., & Baker, D. P. (1987). The family-school relation and the child'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348-1357.
- Sui-Chu, E. S., & Williams, J. D. (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 126-141.